뉴진스 민지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 행사장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. /사진=뉴시스그룹 '뉴진스'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탄원서(진정서)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.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다니엘, 민지, 하니, 해인, 혜인 다섯 멤버는 전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.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날이다.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. 다만 평소 민 대표가 '뉴진스 맘'으로 불렸고, 멤버들과 이들의 부모와 민 대표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해온 만큼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.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상대로 감사권을 발동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첫 입장을 내면서 "뉴진스 멤버들,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했다"고 밝히기도 했다.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반면 하이브 측은 전날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가 아티스트의 보호에 관심이 없다며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 삼는다고 주장했다.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향해 막말했다는 정황을 제기하기도 했다.하이브는 이번 탄원서 제출로 참담하다는 입장이다. "본인의 사욕을 위해 심지어 미성년자도 포함된 멤버들에게 탄원서를 쓰게 하는 게 과연 어른으로서 온당한 일인가"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 멤버들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뉴진스의 내달 도쿄돔 팬미팅까지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.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. 민 대표 해임건이 안건이다.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결론은 임시총회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. 전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민 대표의 개인적 악의를 강조한 탄원서를 내는 등 여론전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